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때 가끔 「선생님, 청년시절 얘기를 들려주십시오.」라는 청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실패한 삶의 얘기는 들어 무얼해.」라고 얼버무린다. 그러면 대체로 지나친 겸양의 말씀이라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울리지 않게 잔뜩 추켜올리면서 더 조르거나 또는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한 젊은이에게 꼼짝없이 목덜미를 잡힌 일이 있다. 「상투적인 핑계인 그까짓 실패한 삶을!」 하니 말을 떼자마자, 바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듣고 싶다,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려다오, 그래야 자신이 실패의 함정을 피해서 제 길 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니 꼼짝 못 하고 사제 앞에 고해하듯 다 얘기하되, 특히 실패한 부분은 기억되는 한의 것은 빼지 않고 고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다.

사실 선배나 친구의 성공담, 출세담 따위는 별 흥미도 없거니와 배울 것이 없다. 그보다도 자기 자랑을 늘어 놓는 자들은 대부분 콤플렉스에 차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실을 은폐한다.

간디는 불굴의 투사로 유명하다. 그의 고집에는 가까운 사람들까지 머리를 내저었고 그 때문에 적도 많았다. 그런데, 어떤 이가 간디의 위대한 것 중의 하나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나 또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를 시인할 때는 깨끗이 I was wrong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은 참사람의 성실인데 그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럴 수 있는 한 아무리 늙었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에 늙은 젊은이인 셈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라는 제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몇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불신풍조에 오염되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대의 격차」를 거의 도그마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대간의 대화는 단절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 두 현상은 같은 원인을 갖는다. 요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에서 유발된 것이다. 책임을 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활자를 위시한 매체로 대문짝만큼씩 거짓말을 남발하되 진실인 듯이 하기를 떡먹듯 하는 것에 수없이 속아 왔고, 재빨리 말을 갈아 타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군상들이 앞장서서 떠들어 대며, 거짓말을 지휘봉처럼 휘두르는 현상에서 무얼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로부터 경제계·교육계 그리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정색인지 농담인지, 코메디인지 호소인지 구별하기 힘든 표현들이 난무해서 말 자체에 무감각해 버렸는지 모른다. 그래도 참말은 들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디엔가는 진실을 담은 말이 있을 텐데, 진실을 희구하는 마음과 진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랑데부의 자리가 마련돼야 하는데! 말이 통해야 결속이 되고 결속이 돼야 힘이 생기는데!

여기 30여 편의 글을 실어 세상에 내놓는다. 글을 준 이들은

심원안병무아카이브
www.simone.or.kr

編者를 빼면 젊은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분들일 뿐 아니라, 진실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다른 수난도 당한 이들이다.

모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 영역도 달랐다. 언론계·사학계·법조계 그리고 신학계 등, 성격도 출신도 각기 다르다. 그런데도 약속 없이 쓴 이 글들에는 맥이 통한다. 까닭은 아마도 저들은 이 시대를 진실하게 살아 보려고 애쓴 탓이리라. 저들은 민주실현을 위한 싸움의 현장에서 만났다. 이들 모두는 그들 직업에 「前」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거나 붙였던 과거를 가진 점에서 상통한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각기 (좁은) 분야를 떠나 세상거리로 나가야 했으며, 그러는 동안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고, 굴욕과 수모 그리고 밑바닥의 삶의 현장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주무대에서 쫓겨나 사당패에 끼어 다니는 신세였다고나 할까?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안 갈 데 없이 다 다녀 보되 중심 아닌 외곽지대에 사는 삶을 골고루 만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애환과 소원을 배우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 보여진 글들은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어쩌다 굴러든 지면에 쓴 글들 중 젊은이들에 향한 마음이 짙은 것들만 골라서 펴낸다. 글들은 기운 자리, 오려낸 자리 등이 많아 읽어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

1984년 1월 20일

安 炳 茂 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